

조선/기계/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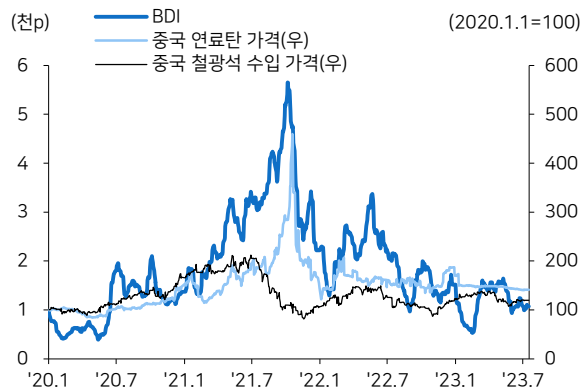
2023. 7. 18 (화)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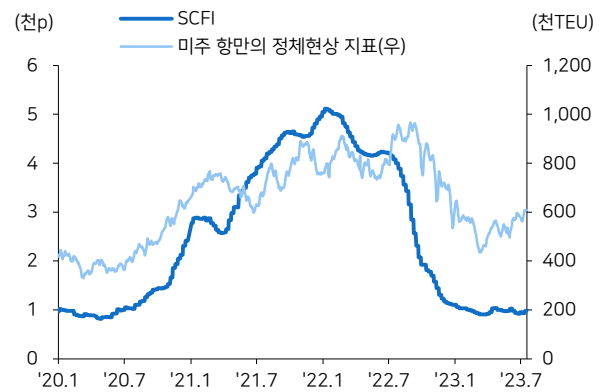
## 건화물운임(BDI)

1,073.0p(-1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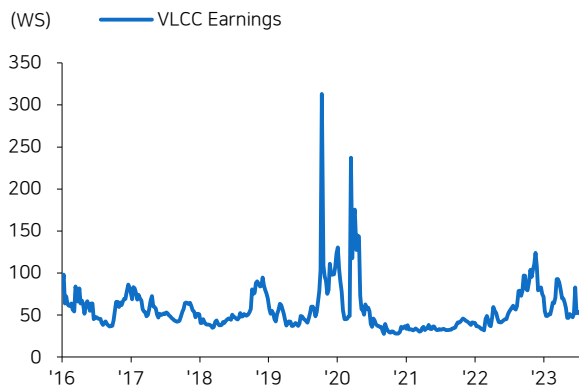
## 컨테이너운임(SCFI)

979.1p(+47.4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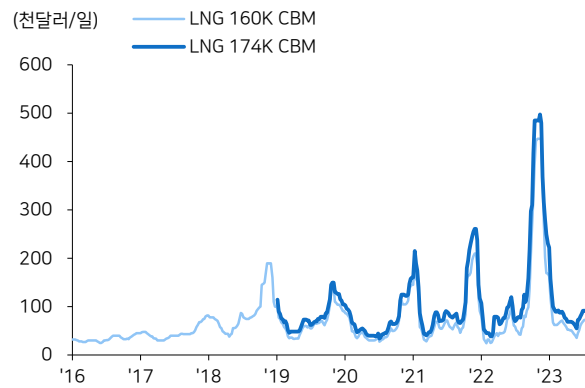


##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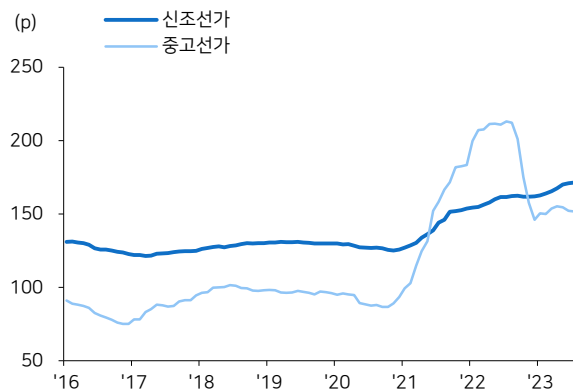
51.6p(-0.7p WoW)



## LNG Spot 운임

72.5천달러(+0.0천달러 WoW)  
92.0천달러(+0.0천달러 WoW)

##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71.6p(+0.4p WoW)  
151.4p(-0.3p WoW)

## 중국 내수 후판가격

566.0달러(-)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삼성중공업, 메탄을 추진선 16척 3.9조원에 수주

삼성중공업이 아시아 지역 선주사로부터 16,000TEU급 메탄을 DF 컨테이너선 16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3.96조원 규모로 단일 선박 계약으로는 최대 수준으로 알려짐. 척당 1.94억달러 수준임. 2027년 12월까지 인도될 예정임. (뉴시스) (<https://t.ly/2F9s5>)

### MSCI '유력 편입생'은 한화오션

MSCI 한국지수의 정기 종목 변경(리밸런싱) 일정이 다가오며 한화오션이 신규 편입될 예정으로 보도됨. 지수에 포함되면 외국인 매수가 늘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됨. 8월 11일 MSCI 리밸런싱 대상 종목이 공개되고, 지수 변경일은 8월 31일로 알려짐. (한국경제) ([https://t.ly/qWQ\\_h](https://t.ly/qWQ_h))

### Russia pulls the plug on UN-led corridor for Ukrainian grain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의 사실상 종료를 발표했다고 보도됨.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관련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협정이 효력을 잃었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짐. 협정은 2022년 8월 1일 시작된 바 있음. (Tradewinds) (<https://t.ly/x5V5c>)

### VLCC and suezmax owners should keep an eye on Argentina's new crude export project, Gibsons says

아르헨티나의 신규 원유 수출 프로젝트가 VLCC 및 Suezmax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보도됨. 미국·가이아나·브라질·캐나다 등 미주 지역에서 원유 생산량이 급증했는데, 아르헨티나에도 집중할 때로 언급됨. Vaca Muerta 분지 시추가 2021년 재개되며 탐사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고 언급됨. 2028년에는 1MPBD를 생산할 전망으로 알려짐. 국영 YPF는 12억달러규모 Vaca Muerta Sur 프로젝트 초기 단계로 380,000BPD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https://tinyurl.com/4e5pyw9r>)

### Imabari boss warns shipbuilding faces a labour crisis

일본 최대 조선소인 Imabari Shipbuilding 회장이 업계 인력난으로 업계 생산능력 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됨.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일본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알려짐. 2011년에 건조된 대규모의 선대가 2026년부터 교체수요가 발생할텐데, 전세계적으로 인력난이 발생할 전망으로 알려짐. 건조비용 상승을 반영해 신조선가는 상승할 전망으로 언급됨. (Tradewinds) (<https://tinyurl.com/2sh23wbc>)

### Product tanker good times set to run until at least late 2024, says Poten

PC선 톤마일 수요와 운임 강세가 적어도 2024년말까지 지속될 전망으로 보도됨.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이 해소될 신호가 없고, 휴전에 도달해도 전쟁이전의 거래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을 전망으로 언급됨. 2023~24년 신조선 인도량은 완만한 수준으로 알려짐. (Tradewinds) (<https://t.ly/310ko>)